

# 전남도, 2026년 지역 주력·미래산업 인프라 강화한다

전남도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탄소중립 규제 강화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석유화학·철강 등 지역 주력산업과 미래 신산업의 인프라 강화 분야 국비 2천10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석유화학·철강·조선 등 주력산업의 구조적 위기 대응과 이차전지·첨단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 등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여수·광양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에 대응하는 산업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산업 경쟁력 회복과 안전·환경, 고용 안정을 고려한 대응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범단지 구축 30억 원(총사업비 125억 원) ▲산단형 초임계 CO<sub>2</sub> 발전 산업화지원센터 구축 54억 원(총 323억 원) ▲선상용 CO<sub>2</sub> 포집 기술개발 및 실증 55억 원(총 392억 원), 기술개발·산업고도화를 위해 ▲석유화학 무탄소 연료 기반 NCC 공정기술개발 83억 원(총 366억 원) ▲미래 모빌리티용 부품 내충격성 향상을 위한 고분자 공중합체 제조 기술개발 55억 원(총 400억 원), 산업위기 선제 대응과 고용 안정을 위해 ▲지역산업 위기 대응 지원 179억 원(총 426억 원) ▲석유화학·철강 고용 안정 165억 원(총 207억 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산업 전환을 동시에 달성할 계획이다.

조선산업 분야는 중국의 급격한 추격(세계시장 점유율 2024년 중국 70.6%·한국 16.7%)과 저가 공세(선가 15~20% 저렴)에 따른 경쟁력 위기 극복을 위해 생산 혁신과 친환경 전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해 ▲친환경 선

### 경기침체·탄소중립 규제강화 등 선제대응 국비 2천103억 확보 석유화학·철강·조선산업 재편과 이차전지·첨단바이오 확대



박용 극저온 단열시스템 생산·제조 기반 구축 22억 원(총 309억 원) ▲암모니아 연료공급시스템 육상 실증 기반 구축 26억 원(총 200억 원) ▲목포·여수·광양·영암의 수리조선 인프라를 활용한 합정 MRO 클러스터 구축 24억 원(총 160억 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K-조선의 생산 혁신, 친환경 전환, 신시장 개척을 선도하는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한다는 목표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최근 증가하는 사용 후 배터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플랫폼을 고도화해 자원으로서 배터리 생태계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환경관리체계 구축 160억 원(총 454억 원) ▲사용 후 배터리 안전관리 및 재제조 유

통순환 60억 원(총 290억 원) ▲해양배터리 특화 데이터허브 플랫폼 구축 20억 원(총 250억 원)이다. 내년 광양만권 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연계해 배터리 생태계를 한층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바이오 분야는 그동안 풍부한 천연 자원 등을 활용한 바이오 신약과 차세대 성장 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과 인재 양성에 힘썼다. 이 같은 기반 위에 연구 초기 단계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연계 체계 구축과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다각적인 공모사업을 유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사업은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 구축 7억 5천만 원(총 350억 원)

▲디지털바이오 스마트 임상지원 플랫폼 구축 70억 원(총 350억 원) ▲팹타이드 첨단신약 원천기술 개발 및 플랫폼 구축 62억 원(총 440억 원) 등이다. 백신·면역치료 분야를 선도하는 바이오 혁신 거점 육성이 목표다.

이밖에도 ▲광양 공립 소재전문과학관 건립 60억 원(총 400억 원) ▲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 건립 5억 원(총 460억 원)을 확보했다.

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정부 정책과 연계해 전남의 산업 특성을 반영한 핵심 산업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

## 광주시, 시민 체감 적극행정 성과 빛났다

### 적극행정위원회, 올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특별재난지역 선포 견인·페이스론 재활용 사례 우수 꼽혀

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 피해 발생 당시 신속한 피해조사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이끌어낸 사례와 도로 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페이스론을 재활용해 환경보호·예산절감·민원감소 성과를 거둔 사례가 올 하반기 광주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최근(12월22일) 시청에서 ‘제3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올 하반기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적극행정 성과를 심사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시민과 부서 추천을 통해 접수된 9건 중 실적 검증과 예산 심사를 거쳐 5건이 본선에 올라, 적극행정위원회의 본심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우대등급)가 결정됐다.

우수 사례로 선정된 ▲광주시 주도적 호우피해 조사를 통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견인 및 복구 및 예방 대책 수립(자연재난과 박승현 주무관)은 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신속한 피해 조사와 자치구 긴급지원반 운영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대규모 국비 확보로 지방재정 부담을 줄였으며 신속 복구와 침수 예방 등 지속할 수 있는 재난 예방 대책을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다른 우수사례인 ▲페이스론 재활용 활성화로 환경보호·예산절감·민원감소,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종합건설본부 김진수 주무관)는 도로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페이스론을 단순 폐기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유·무상 공급체계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연간 수억 원의 폐기물 처리 예산을 절감했으며, 약 2만4000t의 페이스론을 재활용해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보호 효과를 거뒀다. 아울러 절감된 예산을 도로보수에 재투자해 도로포면(포트홀)을 줄이고 시민 안전을 강화했으며, 관련 민원 감소까지 이어져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로 평가 받았다.

장려 사례로는 ▲광주 방문의 해, 전국 150개 뮤지엄을 품다! 2025 박물관·미술관 박람회 유치·개최(문화유산지원과, 박영재 학예연구사) ▲행정예 AI를 도입해 업무에 혁신과 편리를 더하다(데이터정보화담당관, 김성훈 주무관·이은희 사무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산업단지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다(광주경제자유구역청, 서지민 주무관)가 각각 선정됐다.

“박물관·미술관 박람회 유치” 사례는 전액 국비로 추진된 사업으로, 지역 문화기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1대 1 맞춤 상담과 비용 감면 방안을 도입해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도시 브랜드 가치를 함께 높인 점이 성과로 인정됐다. /전광훈 기자

## 남구, 겨울철 노인복지시설 화재 예방 점검

### 오는 31일까지 경로당·노인 복지관 등 대상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겨울철 화재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관내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24일 남구에 따르면 겨울철 노인복지시설 안전 점검이 오는 31일까지 관내 경로당 263곳을 비롯해 노인 복지관, 무료 급식소, 자활사업단 등지에서 진행된다.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어르신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화재 대비를 위한 전 열기와 콘센트 등 전기설비 안전 상태를

비롯해 한과 대비 시설물 점검, 어르신 건강관리 등이다.

또 시설 내 비차된 소화기 등 정상 작동 여부와 난방 기기 사용 실태 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점검한다.

이와 함께 각종 시설을 이용 중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시 초기 대응과 대피 방법에 대한 안전 교육도 병행한다.

남구 관계자는 “노인복지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무엇보다도 사전 점검



과 예방 활동이 중요하다”며 “관내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채일 기자

## “11개 기관과 손잡고 ‘동구형 통합돌봄’ 추진한다”

### 지역자활센터 등 11개 기관과 협약... 7대 서비스 수행

광주 동구는 지난 23일 구청에서 동구 지역자활센터 등 11개 서비스 제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 ‘동구형 통합돌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광주동구지역자활센터 ▲광주광역시 안심돌봄센터 ▲광주재가노인복지협회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사)한국의료복지사회의적협동조합 ▲(사)대한물리치료사협회 ▲광주광역시·전라남도회 ▲(사)대한치과위생사협회 ▲광주·전남회 ▲집수리공동체 ▲예술유희동조합 ▲사회복지법인 영화복지회 등 총 11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바

라므로, ‘광주다움 통합돌봄’ 7대 핵심 서비스를 공동으로 수행하게 된다.

주요 서비스는 ▲일상생활 지원 ▲식사 지원 ▲병원·외출 동행 ▲건강관리 ▲안전 확인 ▲주거 편의 지원 ▲일시 보호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동구는 이번 협약 기관들과 함께 동구 특화사업인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 운영에도 힘을 모을 계획이다.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는 주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돌봄·여가·문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 주민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 /오철수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



# 교실에서 찾은 희망, 희망을 키우는 광주교육